



##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최 소 영<sup>1)</sup> · 김 영 혜<sup>2)</sup> · 오 현 숙<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구 성 개방 풍조의 유입 및 성의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과 향락산업의 번성, 대중매체에서의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 성과 관련된 국내 사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Park, 2003).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 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성교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거의 피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Park et al, 1998).

미국은 10대의 임신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로는 18세 이전 여성의 60%, 남성의 70%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onha, 200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Yeoum(2003)의 최근 연구에서는 14.8%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경험은 임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미국은 매년 95만명 가량이 10대에 임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려우나 Ministry of Education과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에서 여학생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은 10.8%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Park 등(1998)의 연구에서 보고한 0.7%와 Chang 등(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0.5%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 10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10대 임신율은 계속 증가하여 미국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인 성풍조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성교육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90%이상(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임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의 성경험이나 임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므로, 10대들의 임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동기들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Wang, Wang & Hsu, 2003). 피임이란 일종의 수태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조치를 말하는데(Lim & Cho, 2002),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사용 없이 성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임신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Jorgensen & Sonstegard, 1984). 10대 임신모의 95%는 출산보다는 임신중절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ukmin daily, 2001, 1), 청소년 기획위원회는 한 신문 기사에 청소년들이 만 들어갈 성문화를 위해서 피임교육은 꼭 필요하며 낙태를 피임의 한 종류로 잘못알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표현과 함께 제대로 된 피임교육을 강조하였다(Hankore, 2003). Wang 등(2003)의 연구 결과에서 피임지식은 10대 임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피임교육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임신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교육 내용 중 피임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바르게 교육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10대들이 가장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역시 피임과 임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주요어 : 사회적지지, 우울, 노인여성

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 부산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css4214@nongae.gsnu.ac.kr)

투고일: 2004년 1월 6일 심사위원회: 2004년 1월 9일 심사완료일: 2004년 3월 5일

그러므로 10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0대들의 피임지식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피임지식은 성지식에 일부 포함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Kang, 2002; Kim & Lee, 1995; Oh, 2003) 이러한 방식으로는 10대들의 정확한 피임지식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10대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행동과 임신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피임지식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피임방법들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문제

- 10대 청소년의 성행동 및 임신실태를 알아본다.
- 10대 청소년의 피임지식정도를 알아본다.
- 성행동, 임신 및 피임지식정도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 특성의 변인을 알아본다.

### 용어 정의

#### • 피임지식

피임지식이란 생식기관과 관련된 해부 및 생리, 피임의 효과 및 사용, 임신증상, 유산의 부작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말하며(Wa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Kim(2001)이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총 15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피임방법이란 임신을 의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약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척도를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984)가 개발하고 Han(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매우 잘 안다' 5점 '전혀 알지 못한다' 1점으로 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 성행동

개인의 성과 관련된 행위로 본 연구에서는 키스나 애무, 성교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도에 분포한 6곳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10대 청소년의 성행동 및 임신 실태, 피임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표본 표출 방법은 이단계 층화 집락표출법(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경남 소재 6개 학교(1개의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1개의 남녀공학 실업계 고등학교, 1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1개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2개의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는 1, 2, 3학년 각각 1학급씩을 표출하고, 중학교는 2, 3학년 1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16학급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료의 특성상 담임교사 보다 보건교사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학생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담임교사에게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게 한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설문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담임교사를 만나 전했으며 총 650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 중 탈락은 없었으며 설문지 분석 중 답이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은 23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627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15일 까지였다.

###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과 성행동과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문항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2명의 간호학 교수와 1명의 분만실 수간호사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10개 문항, 키스나 애무, 성교, 임신 유무와 첫 성교 나이 등 성행동과 관련된 문항 4개, 그리고 피임도구 사용과 효과 등을 묻는 문항 6개로 이루어져 있다.

피임지식과 관련된 도구는 Kim(2001)이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임신과 피임의 원리, 피임방법의 장단점, 사용방법 등 피임과 관련된 정보를 묻는 총 15개 문항으로 피임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하여 '맞다'는 1점, '틀리다'와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이 .60,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과 관련된 지식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984)가 개발하고 Han(1998)이 수정 보완한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 구성되어 있다. 각 피임 방법에 대해 '아주 잘 안다'는 5점으로 '전혀 모른다'는 1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행위 및 임신 실태는 서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으며, 피임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임신과 성행동 및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chi^2$ (chi-square),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별로는 17세(32.1%)가 가장 많았으며, 재학 중인 학교는 실업계 남녀공학이 163명(26.0%), 가정형편은 중간 정도가 523명(84.0%), 종교는 '있다'고 답한 학생이 351명(56.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한 학생이 566명(90.6%), 부모님은 '두분 모두 살아 계신다'로 답한 학생이 544명(87.0%), '이전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485명(78.1%), '성교육 내용 중 피임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442명(71.4%), '흡연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561명(89.6%), '음주는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376명(60.5%)이었다.

### 성 행동 및 임신 실태

연구대상 627명 중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96명(32.0%)을 차지하였으며, '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44명(7.0%)을 차지하였다<Table 2>.

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 44명을 대상으로 첫 성교 나이와 임신 경험을 알아보았다.

첫 성교 나이는 11세부터 19세 까지 다양하였으며 17세에 첫 성교를 하였다고 답한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다. 임신 경험에 대해서는 44명 중 6명(14%)이었고 전체 대상자 중 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s)	14	30	4.9
	15	64	10.2
	16	53	8.5
	17	201	32.1
	18	162	25.5
	19	117	18.7
Types of school	middle school	140	22.3
	woman school(academic)	109	17.4
	woman school(vocational)	114	18.2
	bisexual(academic)	101	16.1
	bisexual(vocational)	163	26.0
Economic status	high	13	2.0
	middle	527	84.0
	low	87	14.0
Religion	yes	351	56.1
	no	276	43.9
Who is live with?	with parents	566	90.6
	with relative	22	3.5
	oneself	23	3.7
	others	16	2.4
Marriage status of parents	two-parent	544	87.0
	divorce	49	7.5
	one parent death	32	5.1
	no response	2	
Previous sex education experience	yes	485	78.1
	no	136	21.9
Previous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442	71.4
	no	177	28.6
smoking	yes	65	10.4
	no	561	89.6
Alcohol use	yes	376	60.4
	no	246	39.6

<Table 2> Sexual behavior and pregnancy status (N=627)

Contents	Categories	N	%
Kiss or petting experience	yes	196	32.0
	no	416	68.0
Sexual intercourse	yes	44	7.0
	no	565	93.0
First sexual intercourse age(yrs)	11	1	2.4
	13	1	2.4
	14	2	4.8
	15	5	12.0
	16	11	26.2
	17	12	28.6
	18	9	21.4
	19	1	2.4
	no response	2	
	Pregnancy experience	yes	6
no		37	99
no response		1	

<Table 3> Mean of contraceptive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27)

Characteristics	Category	Score of contraceptive knowledge		F or t value
		M	SD	
Age(yrs)	14	2.67	2.54	7.87**
	15	2.03	2.42	
	16	3.62	3.04	
	17	3.77	2.95	
	18	4.21	3.30	
	19	4.63	2.91	
Types of school	middle school	2.62	2.66	20.90**
	academic	5.58	3.16	
	vocational	3.70	2.92	
	bisexual(academic)	4.70	3.02	
	bisexual(vocational)	3.14	2.75	
Economic status	low	3.80	3.21	.76
	middle	3.79	3.02	
	high	4.85	3.51	
Religion	no	3.85	2.98	.35
	yes	3.77	3.12	
Who is living with?	with parents	3.79	3.05	.24
	with relative	4.14	3.64	
	oneself	3.61	2.82	
	other	4.29	3.07	
Marriage status of parents	two parents	3.82	3.08	.12
	divorce	3.76	2.78	
	one parent death	3.56	3.21	
Previous sex education experience	no	2.99	2.75	-3.94**
	yes	4.07	3.10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no	2.54	2.53	-7.47**
	yes	4.33	3.09	
Smoking	no	3.80	3.08	-.19
	yes	3.88	2.88	
Alcohol use	no	3.68	3.02	-.90
	yes	3.91	3.08	
Total		3.80	3.06	

신경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였다<Table 2>.

**피임지식**

대상자들의 피임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3.8점(±3.06)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피임방법들에 지식을 5점 척도로 알아보았는데, 가장 잘 아는 피임 방법은 콘돔에 대한 지식은 평균 2.8점 이었으며, 그 다음이 월경 주기법 2.7점, 먹는 피임약 2.6점 이었고 그 외의 피임방법들에 대한 지식은 아주 낮았으며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 역시도 1.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추가 분석**

추가 분석으로 일반적 특성 중 성행동과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유무를 알아 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

<Table 4 > Mean of contraceptive method knowledge. (N=627)

Contents	Score(M±SD)
Condom	2.80±1.08
Rhythm method	2.71±1.11
Oral-pill	2.58±1.08
IUD	2.13±1.10
Tubal ligation & Salpingectomy	1.97±1.04
Vasectomy	1.97±1.06
Emergency contraception	1.90±1.05
Spermicidal gel, suppositories	1.56±.88

&lt;Table 5&gt; Sex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27)

Characteristics	sex experience				
	no		yes		
	N	%	N	%	
Age	14	25	89.3	3	10.7
	15	52	85.2	9	14.8
	16	38	71.7	15	28.3
	17	128	66.7	64	33.3
	18	84	52.5	76	47.5
	19	85	74.6	29	25.4
	Chi-square	X <sup>2</sup> =34.43	p=.00**		
School type	Middle	111	82.2	24	17.8
	Academic	85	80.2	21	19.8
	Vocational	66	59.5	45	40.5
	Coeducation(Academic)	74	75.5	24	24.5
	Coeducation(Vocational)	76	48.1	82	51.9
	Chi-square	X <sup>2</sup> =54.57	p=.00**		
Economic state	low	51	60.0	34	40.0
	middle	352	69.6	154	30.4
	high	7	53.8	6	46.2
	Chi-square	X <sup>2</sup> =4.25	p=.12		
Religion	no	187	70.6	78	29.4
	yes	224	65.5	118	34.5
	Chi-square	X <sup>2</sup> =1.76	p=.16		
Who is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377	68.8	171	31.2
	with relatives	13	61.9	8	38.1
	oneself	10	43.5	13	56.5
	others	10	71.4	4	28.6
	Chi-square	X <sup>2</sup> =6.89	p=.08		
Parents	two parents	365	68.9	165	31.1
	divorce	24	52.2	22	47.8
	one parent death	21	70.0	9	30.0
	Chi-square	X <sup>2</sup> =5.47	p=.07		
Previous sex education	no	83	61.5	52	38.5
	yes	324	69.4	143	30.6
	Chi-square	X <sup>2</sup> =2.98	p=.09		
Contraceptive education	no	110	64.3	61	35.7
	yes	297	69.2	132	30.8
	Chi-square	X <sup>2</sup> =1.35	p=.25		
Smoking	no	399	73.2	146	26.8
	yes	12	19.4	50	80.6
	Chi-square	X <sup>2</sup> =73.85	p=.00**		
Alcohol use	no	214	89.9	24	10.1
	yes	194	53.0	172	47.0
	Chi-square	X <sup>2</sup> =89.64	p=.00**		

이, 재학 중인 학교, 흡연 및 음주유무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34.43, p<.001). 학교 형태에서

실업계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성행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X<sup>2</sup>=54.57, p<.001),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X<sup>2</sup>=73.85, p<.001),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X<sup>2</sup>=89.64, p<.001) 성행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이 ( $F=7.87, p<.01$ ), 재학 중인 학교 형태( $F=20.89, p<.01$ ), 이전 성교육 유무( $t=-3.94, p<.01$ )와 성교육 내용 중 피임교육 유무( $t=-7.47, p<.01$ )들이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수록,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피임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키스나 애무, 성교와 같은 성행동 실태와 임신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피임지식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10대들의 성행동 추이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이러한 성행동과 피임지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이전에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78.1%가 많았으며, 성교육 내용 중 피임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답한 경우도 71.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4%인 것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1개 도에만 위치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제한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된다.

10대의 성행동에서 키스나 애무와 같은 행위는 32.0%(196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에서 보고한 52.4%보다는 낮지 Jung(1991)의 연구에서의 6.15%와 비교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성교경험은 7.0%(44명)로 이러한 결과는 Chang 등(2001) 전국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4.5%보다 높게 나타나 갈수록 10대의 성과 관련된 행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신 경험 역시 본 연구에서는 1%(6명)로 나타났는데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에서 보고한 10.8% 보다는 낮지만, Park 등(1998)의 0.7% 2001년 한 신문에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이 0.5%(Hanguk, 2001)라고 밝힌 결과와 Chang 등(2001)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전수를 표본으로 하지 않았고 지방의 1개 도에 분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임신율과 성과 관련된 경험은 또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피임에 대한 교육의 빈도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임지식점수는 본 연구에서 3.8점으로 아주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 타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지식만을 측정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Oh(2003)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 지식 중 피임에 대한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교육 내용 중 피임에 대한 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에 대한 지식을 측정할 때 피임지식을 따로 측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피임방법 중 콘돔이나 월경 주기법에 대한 지식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응급피임약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낮아 10대들이 성교 후 임신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임지식은 10대 임신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의 10대 청소년들의 임신관련 요인을 조사한 Wang 등(2003)은 피임지식이 10대 임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Yoo(2001)는 10대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미혼모의 발생요인에 피임지식이 낮음을 보고한바 있으며, Park 등(1998)은 증가하는 10대 성교경험을 우려하며 피임교육 및 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 신문 논설에서 청소년 기획위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였다(Hankore, 2003, 9). 따라서 본 연구자는 10대들의 위한 피임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들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결과적으로는 10대들이 임신의 결과로 임신중절을 택하는 현실정(Kookmin daily, 200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Park et al., 1998)을 다소 개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성행동과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지금부터의 성교육은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재학 중인 학교, 흡연 및 음주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체로 성행동에 많이 노출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1998), Chang 등(2001)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더욱 성행위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성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이 필요하

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가 성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p < .001$ ). 이러한 결과는 Yeoum(2003)의 연구, Chang 등(2001)의 연구 그리고 Davis, Tollestrup와 Miham(1990)의 연구등에서 흡연 및 음주 등을 비롯한 약물 남용이 성행위의 증가 및 학교 성적의 불량 등의 문제행동과 연관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Capaldi 등(1996)은 음주가 청소년의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특성들의 변인 중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학교 형태, 이전 성교육 유무, 성교육 내용 중 피임교육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피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피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경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많은 반면 피임지식은 오히려 낮아 임신의 위험성이 높으며, 따라서 확실화된 성교육 보다 차별화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전의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피임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Wang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및 임신은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중점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성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앞으로의 방향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제까지 끊임 없이 성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그들의 피임지식은 상당히 낮음을 알았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절제와 성행위의 결과로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적당한 피임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627명을 대상으로 10대 청소년의 성행동 및 임신실태, 피임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앞으로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 627명 중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96명(32.0%)을 차지하였으며, 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44명(7.0%)을 차지하였다. 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 44명을 대상으로 첫 성교 나이와 임신 경험을 알아본 결과 첫 성교 나이는 11

세부터 19세 까지 다양하였으며 17세에 첫 성교를 하었다고 답한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다. 임신경험에 대해서는 44명 중 6명(14.0%)이었고 전체 대상자 중 임신경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였다.

- 대상자들의 피임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3.8점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피임방법들에 지식을 5점 척도로 알아보았는데, 가장 잘 아는 피임 방법은 콘돔에 대한 지식(2.8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월경 주기법(2.7점), 먹는 피임약(2.6점)이었고 그 외의 피임방법들에 대한 지식은 아주 낮았으며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 역시도 1.9점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분석으로 일반적 특성 중 성행동과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 본 결과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이, 재학 중인 학교, 흡연 및 음주유무로 나타났는데 나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형태에서 실업계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나이, 재학 중인 학교 형태, 이전 성교육 유무와 성교육 내용 중 피임교육 유무 등이었다. 즉 피임지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여고와 인문계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실업계 여고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피임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전에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성교육 내용 중 피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답한 대상자 일수록 피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서 10대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경험은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비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지식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10대 임신실태를 조사하고,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앞으로 10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Caldi, D. M., Crosby, L., & Stoolmiller, M. (1996). Predicting the timing of first sexual intercourse for at-risk adolescent male. *Child Dev*, 67, 344-359.
- David, R. L., Tollestrup, K., & Miham, S. (1990). Trends in

- teenag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hington State :1984 through 1988. *American Journal of Disease Child*, 144, 1297-1301.
- Han, Y. J. (1998). *Influence factors to self-esteem of teenage and twenties unmarried mother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teenage girls in Korea, *J Korea Acad Nurs*, 31(5), 921-931.
- Closed sex education stop. (2003, september 9). Hankore 21 Internet news, from <http://news.naver.com>.
- Kang, H. S. (2002). *Sex Knowledge, sex behavior and sex value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Y. J., & Lee, H. K. (1995). The effect of sex education for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sex,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 35-53.
- Kim, M. J.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84). *Unmarried women's status*.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im, H. J., & Cho, Y. H. (2002).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2, 412-422.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 *High school sex education need surve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High school sex education need survey*.
- Jorgensen, S. R., & Sonstegard, J. S. (1984). Predicting adolescent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 An application and test of the fishbein Model. *Journal of Marriage Fam*, 46, 43-55.
- Oh, D. J. (2003).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youth's sex knowledge, sex attitude, sex behavior and sex value in cyber ag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9, 719-733.
- Park, H. J. (2003). *School sex education status and activation method*. School sex education activation for seminar.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Park, Y. J., Ku, P. S., Kim, T., Shin, J. C., Lee, C., Moon, J., & Oh, M. J. (1998). Pregnancy, abortion and delivery rates for korean teenagers, *J Korean Acad Nurs*, 28(3), 573-582.
- Pregnant women' s 8% teenager. (2001, January 31). *Kukmin daily post*.
- Specific American Style Sex Education. (2003, November 18). *Moon Ha post*.
- Yeoum, S. G. (2003).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9(3), 309-318.
- Yoo, S. M. (2001). *A Study on unwed teenage moth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Wang, R. H., Wang, H. H., & Hsu, M. T.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A sample of taiwanese female adolescents. *Pubic Health Nurs*, 20(1), 33-41.

##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Choi, So-Young<sup>1)</sup> · Kim, Young-Hae<sup>2)</sup> · Oh, Hyun-Sook<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among teenage. **Method:** The subjects were 627 of teenaged girls from 14 to 19 years old who lived in a capital city.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s used the convenience sampling.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contraception knowledge too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using descriptive statics, chi-square, t-test, ANOVA, Duncan test for post hoc with SPSS program. **Result:** The finding of Sex experience was kiss and petting experience 196(32%), sex intercourse 44(7.2%) and pregnancy 6(1%). Average of contraception knowledge was 3.8 score(total 15). Statically significant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elated to sex experience were age, school type, smoking and alcohol use. Statically significant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elated to contraception knowledge were age, school type, previous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on educ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health professional informations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teenage pregnancy.



**Key words** : Sexual behavior, Teenage pregnancy, Contraception, Knowledg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You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2 Chilam-Dong, Chinju, GyeongNam 660-751, Korea  
Tel: +82-55-751-8781 Fax: +82-55-754-0484 E-mail: css4214@nongae.gsnu.ac.kr